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3월 3일(금)

...(음력 2월 6일)...

Пятница

3 марта 2017 г.

№ 8(11672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3·8절 축하문

친애하는 사할린 여성 여러분!

훌륭한 명절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명절을 자연이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에 기리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바로 여성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따뜻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주며 세상에 새 생명들이 태어나도록 하고, 좋은 일들이 실현 되도록 의욕을 북돋워 주기 때문입니다.

사할린주의 생활에서도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역은 다방면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경제가 발달하며 많은 의미있는 일들과 흥미로운 기획들이 실시되고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에서 우수하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경제·정치·사회 활동에서도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것도 동시에 잘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주 70주년의 해를 맞아 힘겨웠던 시기에 사할린과 쿠릴을 일으킨 기성세대의 여성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서지역이 일하며 살기 재미있는 곳, 스포츠를 즐기며, 창작을 하고, 활동적으로 휴식 하기 좋은 곳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들을 소중히 보존하고 사할린 및 쿠릴의 새 세대들에게도 전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섬지역의 성공적인 발전과 평화 유지와 우리사회의 화합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고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자녀들은 성공적인 성취를 기뻐하고,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

첫 '아시아의 아이들'동계스포츠 게임 사할린에서 진행 확정

2019년 2월 15-28일로 계획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을 방문한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 안톤 자이체브 장관은 일본에서 아시아 올림픽평의회 회장이자 민족연합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셰이크 아흐마드 알 파하드 알 사바와 만날 기회를 가졌다. 안톤 자이체브 장관은 그와 사할린에서 첫 <아시아의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게임을 개최하는 문제로 논의했다. 현재로서는 대회 시기는 대략 2019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주스포츠부 홍보실에 따르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은 "<아시아의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게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습니다. 이제 사할린에 큰 과제가 놓일 것입니다. 사할린에 경기개최를 진행할 많은 스포츠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할린주를 방문하여 조성해 놓은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계획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자이체브 장관은 2019년까지 사할린에서 국제대표단들을 접견할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의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게임에는 세계 35여 개국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
홍보실 자료에서)

단신

투르트네브부총리, 사할린 방문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사할린주를 러시아연방 부총리 유리 투르트네브 러시아대통령극동지역전권대표가 방문했다.

28일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공항을 찾아 사할린주예산의 지급비로 구입한 Bombardier Q400 새 항공기 2대를 점검하고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에서의 항공편을 운영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그는 얼마 전에 개건된 훈련센터<위스토크>를 다녀갔다. 수산업체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개건프로젝트로 현재는 좋은 여건 속에 배구선수와 하키선수들이 숙박식을 하며 훈련을 받고 있다.

다음날 투르트네브 대통령전권대표는 코르사코브구역을 방문하여 라스돌노예마을에서는 공사 중인 낙농장 단지를 점검하고 코르사코브시청에서는 극동토지분배로 배분받은 땅의 소유자들과 만났다.

3월 2일 아침부터 투르트네브부총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를 돌아보며 특히 파괴된 주택 현장을 찾아 낡은 주택들에서 사람들의 이주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 세르게이 나드사진에게 불만을 표했다. 그 밖에도 부총리는 여러 문제를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했다. 이번 사할린 방문일정에는 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가 내내 함께 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이틀간 여성컨퍼런스 열려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야코리>호텔에서 러시아 여성연맹 사할린지부(지부장 나탈리야 코르슈노와 사할린주두마 의원) 확대회의가 열렸다. 사할린주 내 여성단체 대표들은 단체들이 실시하는 사회프로젝트들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약 30명의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모였다. 회의에서는 가족 안에 남편과 자녀, 이들에 대한 법률적 변경사항, 지방 여성들의 성공과 문제점, 인터넷상 미성년의 비합법적 활동,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녀들, 여성의 낙태, 가정폭력의 피해 등에 대한 논의와 대화가 이루어졌다.

확대회의를 통한 논의는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역할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 3월 1일에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트로이츠크예에 위치한 여성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사실 적어

2월 28일(화) 있는 로스포트레브나드소르(러시아소비감시청) 사할린전염병관리국과 후보건부가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2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2854건이 기록되었는데 현재는 전 후보다 감소한 1500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할린주에서 유행성감기로 인해 휴교하는 교육기관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A형 독감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방침이며, 주민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예방하기를 권했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크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정달마 (러시아명 밀라 예브게니예브나)씨는 일본정부의 지원 아래 한인 1세를 대상으로 한 사할린주한인회가 운영하는 의료상담실에서 이미 2년 반 동안 담당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진료소 내과 3과 과장 정 밀라 예브게니예브나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배순신** 본사가자는 한인문화센터내 2층에 위치한 의료상담실을 찾았다.

- 우선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고르노자워드스크 출신입니다. 올해는 러시아 나이로 50세가 되는 해입니다. 1991년에 블라고웨렌스크 의대(현재 아무르의료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병원에서 인턴을 한 후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진료소에서 내과 의사로 활동하게 되었죠. 현재 5년째 제3과 내과를 맡고 있습니다.

- 1991년이면 러시아가 붕괴상태에 빠진 그 시기인데 경제적으로 일반인들은 엄청 어려웠고 많은 교사와 의사들이 종사하던 직을 그만둔 경우도 많았죠. 괜찮으셨어요?

-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대학시절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함께 사할린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 당시 팍애가 1년도 안 되었요. 사실 고르노자워드스크에 계시는 부모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 다. 처음에 아이는 거의 부모님께 맡기다 시피 했고 부모님께서 농사하시는 밭이 우리를 먹여살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기회가 될 때마다 부모님의 밭일을 도와드렸죠. 5월이면 가족 다같이 부모님 댁을 찾아 감자도 심고 했고요... 90년대 시기를 생각하면 정말 그 당시 많은 의사들이 병원, 진료소 같은 일자리를 그만두 고 시장에 나가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과 문이 열려 한국 가정 용 품 등 장사하는 사람도 많았죠. 성공한 사 람이 있었지만 별 재미를 보지 못한 사람 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되돌아온 의사들도 있 더라고요. 그 당시 월급이 적은데다가 노 임이 밀린 경우가 많았어요. 이미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비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경우죠.

- 선생님은 의사를 포기할 생각은 있었나요?

- 아니요. 제가 학교 8학년 때쯤 의사 되기로 결심했었거든요. 그후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번 도 다른 직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제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부터 시작한다 해도 다시 의사직을 선택했 을 것입니다. 저의 딸도 의사가 되고 싶어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행복은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려는 것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진료소 정달마 내과 과장과의 인터뷰



했는데 10학년에서 갑자기 법학을 배우 겠다고 하더니 결국 법률전문가가 되었네 요.

- 선생님은 고급 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죠?

- 네, 맞습니다. 이미 10년 고급자격 증을 갖고 있어요. 원래 의사는 5년에 한 번 자격을 확증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확 증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의사들이 독 학을 해야 해요. 작년부터 의사면허증에 따른 시스템이 생겨서 의사는 계속 공부 해야 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찾고, 교육 을 받고 점수를 따야 하는데 이것은 근무 시간 말고 모두 퇴근 후에 자신의 자유 시 간에 해야 합니다. 1년에 50점, 5년 안에 250 점을 받지 못하면 의사 면허증도 연 장되지 않습니다. 한편 의사자격에 대한 규칙도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 면허증과 내분비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과장이니 직원관리 자격증도 따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공부하는 걸 즐기거든요. 제가 즐겨 찾아 읽는 책들은 연구서 자료들입니다. 보험 회사들의 요청에 제가 전문 소견을 제출 하기도 하거든요. 저의 판단에 사람 운명 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신중히 사례를 연구하고 소견을 내야 하는 거고요.

- 과장님은 진료소에서 의사로서 직 접 환자를 상담하시는 건가요?

- 직접 환자는 받지 않아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직원 25명이 근무하는데 그중 의

사 4명, 의사의 조수 3명, 나머지는 간호사 들입니다. 게다가 저희 과에서는 교육기관 들도 관리하니 할 일이 많습니다. 현재 제 대로 관리하자면 법도 잘 알아야 하고 법 적 변경 사항도 빨리 파악해야 하는거죠.

- 선생님께서 주한인회 소속 의료상담 실 의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의료상담 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진료소 내과 장 지나 과장이 맡으셨는데 그분이 은퇴 하시고 영주귀국하셨거든요. 그때 사할린 주이산가족협회 박순옥회장(현 주한인회 회장)에게서 의료상담실 담당해 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사실 승락을 한 이유는 문 화센터가 저의 직장-제2진료소와 겹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가까워서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장 선생님이 한국에 계 실 때는 제가 상담을 하고 장 선생님이 사 할린에 오셨을 때는 제가 쉬고 장 선생님 이 상담을 하시는 방식으로 했어요.

- 상담실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 는지요?

- 1세대분들을 위한 상담실이죠. 유 즈노사할린스크, 그리고 근처 루고워에, 노워알렉산드롭스크 등 유즈노사할린스 크 가까이 있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찾아 옵니다. 상담실은 매주 월, 수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문을 엽니다. 상 담실이기 때문에 치료 말고 간단한 상담 만 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대부분은 이미 진료소들에서 치 료를 받는 중이시고 약 처방도 받는 분들 이라 주치의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맞는 약 을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 로 오리지날의 좋은 약을 드립니다. 주로 혈압약이고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매년 같 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환자들도 찾아오시네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한인회들에서 의사의 약 처방전을 보내줘서 약을 지방으로 보냅니다.

약은 도매약품업체에 주문합니다. 요 구되는 의약품 명부를 주한인회에 제출하 면 그쪽에서 구입합니다. 보시다시피 상 담실에서는 저와 함께 나제즈다 니콜라 예브나 간호사(<건강>진료소 간호사)가 일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제가 오기 전부 터 이곳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상담실은 일본정부의 후원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 어르신들은 자주 찾아오시나요?

- 늦은 가을부터 봄까지 눈이 많이 올 때는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시지 않도록 오셨을 때 2개월 치 약을 드립니다. 그리 고 2개월 후 오시라고 하면 꼭 2개월이 지나야 오십니다. 어르신들이 낱짜를 정 말 잘 지키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누가 오실지 거의 알 수 있죠. 지방 어르신들에 게는 3개월 치 약을 보냅니다.

- 선생님께서 교육 의욕이 많으신데 인생 살면서 좌우명 같은 말도 있을 것 같 습니다.

- 저는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의 "인 생의 유일한 행복은 끊임없이 앞으로 달 려가려는 것"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것이 제 좌우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럼 사람에 관해서는 무엇을 중요 하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무엇보다 직감이라고 할까요. 이견 의사에게는 참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진단을 내려야 할 때 느낌이 와야 합 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거죠. 세 번째는 교육 의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 고 고집을 부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 선생님께선 자질향상 시간 외에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 계절이 따라 다르지만 원래는 스포 츠를 좋아합니다. 수영도 하고 피트니스도 하고 그리고 마사지 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외동딸이 결혼해서 손자를 낳아서 2세 된 꼬마와 시간 보내기를 물론 좋아하고요.

-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요?

- 이른 가을입니다. 사할린에서 그때 는 맑은 날씨가 되게 많잖아요.

-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요?

- 산호색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특히 옷 색깔로. 저는 이 색깔이 동양 여자들이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굴을 좀 빛 나게 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푸른 하늘색입니다. 컴퓨터 화 면도 그렇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하늘색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그냥 선물!>을 나누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유.가가린 문화휴식공원 직원 들은 2월 28일 <그냥 선물!> 자선활동을 전개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배려가 필요한 사람 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하고 힘겨운 그들의 삶에 명 절 기분을 더해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선물은 어려운 환경 속에 지내는 아동들과 중노년의 사할린 주민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했다.

달콤한 기쁨은 <마야초크>사회복지센터의 교사들과 트로이츠크예보육원 아동들이 받았다. 주최측은 유즈노사할린스크양로 및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나 제즈다>재활학교와 러시아 정교회 니콜라이 교구의 교인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했다.

«Подарок просто так!» разда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трудник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 Гагарина 28 февраля прове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акцию «Подарок просто так!». По информаци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так они хотели ока зать своеобразный знак внимания нуждающимся в за боте людям и добавить праздника в их нелегкую жизнь. Адресатами стали дети, оказавшиеся в тяжелой жиз- 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а также пожилые островитяне и инва- лиды.

Сладкие мешочки радости получи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Маячок» и дет- ского дома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Подарки организаторы вручили также постояльцам южно - 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ма - 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читателям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библиотеки для слепых, учащим- ся коррекционной школы «Надежда» и прихожанам пра- вославного прихода святителя Николая.

트로이츠크 스키마라톤에 600 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제24 트로이츠크 크로스컨트리(스키마라톤)에 6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다양한 연령의 스키 선수들은 1km부터 50km 까지 8개의 계주에서 경기를 치렀다.

전례대로 양일간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는 2월 25일-26일 트로이츠크예 마을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아니와시 알렉산드르 이와쇼브 시장이 참가 자들을 환영하며 스키 마니아들에게 경기 개막을 축 하하고 관람차 방문한 귀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선수들에게는 쾌속 경주와 성공적인 기록을 기원 했다.

첫날 경기에 1, 2, 3, 5, 10 km 계주 클래식 주법 경주에는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경기 둘째 날 에는 계주 16,7km · 33,4km, · 50 km 에서 자유 주 법으로 주행하는 300여 명의 선수들이 승부를 다투 었다고 주스포츠부 홍보실은 전했다.

Троиц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собрал более 600 участников

XXIV Троиц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собрал более 600 участников. Лыжники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соревновались на восьми дистанциях от 1 до 50 км.

Традиционный двухдневны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ро- шел в Троицком 25 и 26 февраля.

Участников приветствовал мэр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андр Ивашов. Он поздравил любителей лыж с открытием соревнований и поблагодарил гостей за участие в Троицком лыжном марафоне, а также по- желал спортсменам отличной лыжни, быстрых секунд.

В первый состязательный день на старт вышли око- ло 500 спортсменов на дистанции 1, 2, 3, 5 и 10 км классическим ходом.

Во второй день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грады марафона оспорили более 300 лыжников, которые преодолевали дистанции 16,7 км, 33,4 км и 50 км свободным стиле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8면에 계속)

마슬레니짜 마무리, 겨울을 전송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이번 마슬레니짜 주간의 마지막 날(용서의 날)인 2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가가린휴식공원에서 전통적으로 겨울과 작별인사를 고했다.

이날 마슬레니짜의 마지막 행사들이 공원 곳곳에서 펼쳐졌다.

놀이기구 옆에 있는 공연장에서는 카자크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카트경기장에서는 광대들이 출연하여 관중들에게 즐거운 기분을 돋우었다. 그리고 여러 쿡쿠르들도 열렸다.

올해 마슬레니짜의 주요 행사들은 웨르호네 예호숫에서 펼쳐졌다. 눈 미끄럼틀, 눈으로 만든 요새를 즐기고 상품을 낚는 낚시질도 해서 당첨되기도 했다. 물론 마슬레니짜를 상징하는 불린도 맛보며 뜨거운 차도 마실 수 있었다. 이날은 서로가 한 해 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는 날이다.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마지막 날에 공원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 가벼운 듯, 곳곳에서 흥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기대되는 시간은 마지막 행사로 겨울을 상징하는 짚인형을 태우며 사람들은 겨울의 동장군과 작별을 고했다. 사할린의 일부 각 지방에서도 마슬레니짜 행사들이 펼쳐졌다. 정교회에서는 이날 저녁부터 대사순절 금식기간이 시작되었다.



(취재: 이에식기자)

대구에서 '사할린 동포'를 위한 화합의 밤 축제가 열려 - 3월 15일부터 19일까지...4박 5일 간의 러시아 사할린 방문 -

광복 72주년과 한·러 수교 27주년을 맞이하여 민족통일대구광역시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가 전국 지방의 양주와 파주, 김해와 음성, 대창양로원 등 220여 명의 '사할린 동포'들을 대구로 초청, 27일 오후 6시 남구 프린스호텔에서 '대구 시민과 함께 하는 사할린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평양민속예술단과 독도사랑 태권도시범단의 식전 행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대구에서 개최한 행사인 만큼 영주귀국 동포들의 희망노래가 어우러지는 '사할린의 밤' 행사로 민족통일대구광역시청년협의회가 주관하여 북한의 고전 무용과 댄스, 한민족의 애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 민요 등의 축하 공연으로 펼쳐졌고, 2부 행사에서는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인 노래자랑으로 즐거움을 누렸다.

200여 명이 넘는 사할린의 동포들은 이날



행사에 앞서 오전에는 낙동강승전기념관을 방문하여 참전 용사들의 일을 기렸고, 자유민주의식과 올바른 국가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나누기도 했다.

대구광역시와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는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사할린을 직접 방문하여 '제10회 대구의 밤' 행사를 뜻깊은 목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수도권일보, 2017년 2월 27일)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사할린 영주귀국 관련 연표

- 1988 구소련,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사할린 동포의 친족 방문 목적 출국을 원칙적으로 허용
- 1989 구소련, 사할린 동포의 일시 모국 방문과 영주귀국 허용
- 1990 한국 정부, 영주귀국 업무처리지침 수립
- 1992 춘천 사랑의 집으로 독신자들 영주귀국
- 1994 한일 공동조사단의 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대창양로원으로 독신자들 영주귀국
- 1995 일본 정부가 정착시설 지원금 32억 엔을 일본적십자사에 입금
- 1997 임대아파트 100가구(서울 등촌동, 인천, 부천)에 영주귀국
- 1998
- 1999 인천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 개원
- 2000 총 489세대 967명 안산 고향마을 입주
- 2005 안산 요양원 개원
- 2007 인천 논현동 임대아파트 582명 입주

※ 2013년 12월 현재 총 4천189명이 영주귀국하여 3천187명 국내 거주
※ 2015년 총 4천424명을 끝으로 영주귀국사업 종료 예정

인터뷰

"한국 가려고 재혼 서둘러... 결국 이혼 후 자녀 곁으로"

영주귀국 포기하고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온 김춘자 씨

2014년 1월 20일. 창밖에 비치는 햇살이 한없이 따사로운 그 날 오후,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김춘자 씨를 만났다. 1944년 브이코프 탄광촌에서 태어나 출곤 사할린에서 살아온 김씨는, 지난 2008년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했으나 지금은 다시 사할린에서 딸과 지내고 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에서 불과 5년을 못 버티고 왜 이 춥고 시린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는지, 나는 그 사연이 궁금했다.

영주귀국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해 달라.

남편과 사별하고 영주귀국을 생각하던 중,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혼을 하기로 했다. 마침 영주귀국을 같이 하자고 전화 연락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와 함께 2008년 충남 아산으로 귀국했다.

재혼한 분과는 사할린에서 살아보았나?

사할린에서는 같이 살지 않았고, 단지 전화 통화만 했었다.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 들어가서였다.

같이 한국에서 생활하기는 어땠나?

한국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내 주변에는 원래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와 오빠는 물론 사별한 남편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런데 재혼한 남자는 술을 많이 마시고 주사까지 부리더라. 더러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참다 못해 한 달 살고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후 어떻게 지냈나?

별거하고 1년 반 만에 결국 이혼을 했다. 어찌할까 하다가 마침 인천 삼산동 아파트에 자리가 나서 그리로 옮겨 홀로 지냈다. 혼자 지내니 너무 외롭더라. 자녀들을 불러 함께 살고 싶어도 그들은 영주귀국 대상이 아니어서 안 되고, 친구들은 다 다른 도시에 살아서 전화는 해도 만나기는 어렵고, 귀국해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였다. 자식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온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

2012년에 내가 많이 아팠다.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 얼마나 서럽던지. 생각해 보라. 아파도 물 한 잔 떠먹여 줄 사람이 없으니 내 마음이 어땠겠냐. 동네 이웃도 저녁 6시에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나면 늘 혼자여서 밤이 되면 더 서럽고 외로웠다. 그때 내가 죽어도 자식을 곁에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할린으로 돌아온 거다. 자녀들이 한국에 올 수 없으니 내가 사할린에 와야지 별 수 있나?

그러면 한국 생활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는 않겠다.

그렇지는 않다.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조국이니까 이러나저러나 그냥 좋은 거다. 그 마음은 아마 고국을 떠나 살아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 달라

사할린동포특별법의 과거와 현재

201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27명에게 두 권의 책이 전달되었다. 지구촌동포연대(KIN)가 사할린 구석구석을 다니며 동포들에게서 받은 편지, 그리고 국내 유족과 영주귀국 동포들이 직접 쓴 편지를 모아 엮은 책이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Итак, мы с вами в прошлый раз 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в Чосоне нарастал конфликт между неоконфуцианскими учеными (сари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толичной верхушки – «заслуженных сановников» (хугупха). Особенно кровавыми «битвы» между этими двумя группами стали в конце XV – начале XVI вв. Даже ван не смог избежать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Кризис случился в 1498 г. при ване Ёнсан-гуне. Он был 10-м ваном Чосона и правил с 1494 по 1506 гг. В 1498 г. саримы вызвали широкую критику своих противников, поскольку офици-

альная хроника династии, которую они писали, осудила вана Седжо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совершенный им в 1455 г. Это привело к расправе над историками и их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Гонения на саримов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хугупха, однако Ёнсан-гун вовсе не перешел на их сторону. Наоборот, расправившись с саримами, ван провел ряд конфискации владений и хугупха. К тому же во все время своего правления он показывал себя как жестокий и непопулярный правитель. И хотя рассказы официальных хроник,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писаны после его правления, о происходящих во дворце оргиях вряд ли можно считать абсолютно достоверными, Ёнсан-гун явно не был хорошим правителем. В конце концов он был свергнут с престола, сослан в провинцию и убит. Он также был лишен храмового погребного имени, так и оставшись в хрониках династии лишь как Ёнсан-гун (принц Ёнсан).

К власти после свержения Ёнсан-гуна пришел его брат по отцу Чунджон. Чунджон правил с 1506 по 1544 гг. и в его правление саримы предприняли попытку осуществить давно задуманные реформы. Связаны эти реформы были с именем неоконфуцианского ученого Чо Кванджо (1482–1519), который стал доверенным лицом вана. Программа Чо Квандж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а искоренение «суеверий», то есть решительное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буддизм, активную пропаганду конфуцианских текстов и морали, повышение роли экзамен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Последнее нововведение вызвал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хугупха, поскольку означало, что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олжност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интеллектуалы-саримы, тогда как хугупха останутся не у дел. Они вновь повели решительную борьбу против реформаторов-саримов и им удалось одержать еще одну победу – во время репрессий на ученых в 1519 г. погиб и Чо Кванджо и многие молодые неоконфуцианские реформаторы. Саримам не удалось оправиться от этого поражения – ни в правление Чунджона, ни в правление его приемника Мёнджона (1545–1567) им так и не удалось взять под свой контро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ппарат.

Однако репрессии, которым подвергались саримы в столице, не могли остановить деятельности их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о распространялось не только сверху, но и снизу, в результате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винциальных интеллектуалов. Учение Чжу Си,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а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а, в глазах многих обладало не только новизной, но и давало четкие рациональные рецепт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Немалую роль тут играла и готовность радикальных сторонников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а погибать и страдать за свои убежд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стоянных усилий тысяч рядов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овой элиты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остепенн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эта идеология, меняя отношение к семье, государству, миру. И даже то, что «наверху» на саримов устали гонения, не меняло ситуацию.

Именно это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и подготовило победу саримов, которая была связана с восшествием на престол вана Сонджо, правившего с 1567 до 1608 г. Собственного именно его правление принято считать границей между «ранней» и «поздней» династией Ли, между двумя разными эпохами правления ванов из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Рисунок 1. Могила вана Ёнсан-гун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 СО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БУДУЩЕЕ

В сентябре 1937 г. на основании совместн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наркома СССР и ЦК ВКП(б)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подписанного И. Сталиным и В. Молотовым около 172 тысяч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и выселены из своих обжитых мес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Корейцы прошли через трудные годы выживания, тяжёлые испытания, невзгоды и лишения. Однако, за более чем 150-летнюю историю пребывания в России корейцы гармонично интегрировались в советский и российский социум, стали неотъемлемой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единой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Опыт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и в странах СНГ особо востребова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качестве образцовой модели адапт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и этнических меньшинств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и поли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ществе.

В Москве на 30 мая 2017 года намечено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1937 год –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Корейцы как часть Русского мира». Она посвящается 80-летию годовщины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являютс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цион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Московский до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Для участия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глашаются известные учёные, специалисты-корееведы, политик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журналисты, практики.

В сентябре – начале октября 2017 года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ладивосток, Уссурийск, город Приморь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намечены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Поезд памяти, Гала-концерт и экскурси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ают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Целями и задачами симпозиума являются ознаком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и миров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фактами выселения в 1937 году корейцев из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Подтверждение вывода, что трагедия вы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есмотря на тяжёлые утраты и лишения в итоге сыграла положительную роль в их дальнейшей судьбе.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темы: 1937 год – взгляд через 80 лет, практическая сторона реабилитации корейцев, форм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самовыражения, роль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гармонизаци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странах пребывания, культур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стран СНГ и мира.

В работе симпозиум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и зарубежные учёные, политик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изучающие историю, жизнь и судьбу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ведение этих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нет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Моисей КИМ,
член Оргкомитета.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февраль 2017 г.)

В объективе – Сахалин послевоенный ...

28 феврал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открылась новая выставка «В объективе – Сахалин послевоенный ...», посвященная 7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ители музея смогут взглянуть на то, что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1946–1947 годов глазами одного из первых советск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фотографов – Ивана Степановича Квача (1908–1979 гг.). Основу выставки составляет коллекция фотографий и предме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деятельностью это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Фронтовик,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рошедший боевой путь от Приморья до Кенигсберга, И. С. Квач служил фотографом в политотделах 78-й и 97-й стрелковых дивизий,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участвовал в боях против Квантунской армии в Маньчжурии.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длинные письма с фронта, фотографии, негативы и контрольные отпечатки, сделанные И. С. Квачем в Восточной Пруссии и Маньчжурии.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полевые фото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оторые он использовал для проявки и печати фотопленок и фотографий. Эти уника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хранятся в семье детей И. С. Квач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были любезно предоставлены ими для выставки.

После демобилизации И. С. Квач вернул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и был принят на работу фотографом в Приморский филиал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ССР. В качестве фотографа о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комплексно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состоявшейся в мае-октябре 1946 года. Он запечатлел множество сюжетов послевоенной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Шикотане, Кунашире, Итуруп, Уруп и Парамушире, часть из них экспонируется на выставке. В 2015 году фотографии, сделанные в ходе экспедиции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архи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фотоальбоме «По земле тысячи остро-



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часть фотографий И. С. Квача демонстрируется на выставке впервые. Здесь ж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гативы, контрольные отпечатки и полевые дневники фотографа, хранящиеся в архиве Приморского филиала РГО.

Отд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выставки связан с работой комиссии по переименованию японских названий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руководимой лейтенантом-топографом Ю. К. Ефремовым. Участники комплексной экспедиции встречались с Ю. К. Ефремовым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фотографии И. С. Квача и подлинные документы Ю. К. Ефремова, переданные им семьей географа.

В первые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рус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проживали бок о бок с япон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острова, зачастую разделяя помещения в японских домах, пользуясь их бытовыми предметами, впитывая дух совершенно иной культуры, не похожей на устоявшийся «русский» быт. Экспозиция подлинных предметов, хранящихся в фонд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показывает эту особенность послевоен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в период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В созданной инсталляции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разница в культуре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острова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1940-х годов,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Фото: Ли Е Си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асследование спецпрокурора официально завершено

28 февраля официально завершилось расследование спецпрокурора Пак Ён Су по делу о причаст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Кын Хе и Чхве Сун Силь к коррупции. Следствие длилось 70 дней.

Во вторник его команда передала суду дела 17-ти обвиняемы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их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составляет 30 человек.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Ён обвиняется в даче взятки в размере 38 млн долларов, выводе активов за рубеж, сокрытии незаконных доходов. В суд переданы дела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уководства Samsung Electronics. В их числе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ь Чхве Чжи Сон, президент компании Пак Сан Чжин и другие.

В списке обвиняемых также Чхве Сун Силь, которой вменяется вина в получении взятки от Samsung Group, в организации незаконного поступления своей дочери Чон Ю Ра в же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хва.

Спецпрокурор также решил инициировать заморозку активов Чхве Сун Силь, учитывая обвинения в получении взятки. Во взяточничестве обвиняется также бывший старший 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Ан Чжон Бом. Помимо этого, в списке лечащий врач президента Ким Сан Ман и директор косметологической клиники Ким Ён Чжэ, чьим постоянным клиентом является Чхве Сун Силь, бывший рект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хва Чхве Гён Хи и другие. 6 марта спецпрокурор опубликует результа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К приступил к обсуждению решения по импичменту президенту

27 февраля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 суде завершилась процедура слушаний по делу об импичменте президенту РК Пак Кын Хе, и 28 февраля судьи приступили к оценке доводов сторон. Дата вынесения решения не указана, однако с учётом того, что обычно на обсуждение требуется около двух недель,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о будет объявлено 10 или 13 март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роводит обсуждение дела за закрытыми дверями. Сначала старший судья Кан Иль Вон объявит содержание оспариваемых сторонами моментов, которые подлежат рассмотрению. Затем судьи обменяются мнениями и проведут обсуждение. После этого состоится итоговое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го будет принят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Оно не подлежит пересмотру. Сразу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решение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Разведка РК: Убийство Ким Чон Нама – теракт,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в Пхеньяне

Убийство Ким Чон Нама - эт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й акт, в которо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сотрудни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едомств,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ИД и другие.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27 февраля профильному парламентскому комитету.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четверо из восьми причастных к инциденту являются сотрудник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безопасности, а два человека, предпринимавшие реальные действия, сотрудники МИД КНДР.

Такж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в СК мало кто знал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Ким Чон Нама.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новость о его убийств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аяся в кругах элиты Севера, вызывает крайнее недоумение. Бывший министр госбезопасности Ким Вон Хон находится под домашним арестом по обвинению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ятеро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министерства расстреляны.

РК –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на зимних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в Саппоро

26 февраля в японском городе Саппоро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VIII зимних Азиатских игр. Сборная РК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в общем зачёте, добившись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о всех видах спорта и показав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в истории участия в зимних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завоева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50 медалей - 16 золотых, 18 серебряных и 16 бронзовых. На предыдущих зимних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2011 года в казахстанских городах Астане и Алматы в копилк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борных бы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8 медалей.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Саппоро оказ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раны-хозяйки Игр. Они завоевали 27 золотых, 21 серебряную и 26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У занявших третье место кита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 12 золотых, 14 серебряных и 9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RKI)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роль корё сарам

Чон Тхе Ик, почетный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Поражение Японии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принесло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Но в результат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ии страна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две части.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началась война, конфронтац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сих пор.

В ходе затянувшегося более чем на полвека конфликта обе стороны несли огромные затраты на военные цели, возникла серьезная проблем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из-за разделения ресурсов страны несут большо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щерб, есть множество других проблем, мешающих процветанию Кореи.

Кроме того,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зделения страны все больше отдаляю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гуманитарном плане.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это отрицатель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XXI век диктует свои правила, и все государства для успешн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емятся быть прагматичными и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и в это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глобализации. В такой обстановк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ей целью, без достижения которой дальнейшее процветание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Безусловно, задача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очень сложной, но стороны должны делать перманентные шаги навстречу друг другу. В подобной ситуации необходимо не только время,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взаимное желание Севера и Юга идти на компромисс, предпринимать реальные действия по сближению, поиску точек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Для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три главные задачи. Во-первых, нужно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так как только в ходе совместного диалога можно прийти к какому-то результату. Во-вторых, необходимо поэтапное сближение «от малого к большому», в частности это касается и ядерного вопроса,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интеграции. В-третьих, свою роль должно сыграть 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в частности ООН и друг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 касается вопроса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и запуска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объединен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стать процветающей державой.

Ну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для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необходимы усилия как тех, кто проживает на полуострове, так и зарубежных соплеменников.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не могут быть безучастными к раздел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ведь они тоже страдают все это время.

В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ожив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и имеющие возможность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как с Югом, так и с Севером, должны стать объединяющим мостом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живает порядка 7 млн. 200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СНГ – около 650 тысяч (Примечание редакции: реальная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СНГ, включая Россию,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500 тыс.) Как известно,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назы-



Член общества Толстого в России. 2002 г. –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2001 г. – руководитель службы по вопроса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1993 г. –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Египте. 1998 г. –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Италии

вают корё сарам. Их история началась более 150 лет назад, когда в 1863 году двое выходцев из местности Генвон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Хамген перешли реку Туман и обосновались в одном из поселений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Царской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о разрешило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в 1864 году.

Но затем, спустя почти век, корейцы, перебравшиеся в Россию в поисках лучшей доли, были подвергнуты депортации. В 1937 году порядка 180 тыс. корё сарам были

насилъственно переселены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В ходе этого нечеловеческого акта насил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ью, тысячи корейцев погибли от голода и холод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СНГ, являю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народов своих стран. В 2004 году, когда автор данной статьи работал послом в Росс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олучив официальное согласие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первые провело мероприятие в честь 14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юбилейной даты были реализованы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роекты, проведены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а издана история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ё сарам, проведены науч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 Москвой построен большой бизнес-центр, выделено место под кладбище для корё сарам, в Уссурийске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олучил от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здание старой школы, в котор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функционирует центр.

А уже в 2014 году в честь 15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стало инициатором автопробега Москва – Сеул. Данный проект сыграл большую роль в деле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Его участники, проделав путь через Северную и Южную Корею, как бы проложили связь между двумя разделенными странами.

В то же время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оживает порядка 30 тысяч корё сарам. И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казание им всесторонней поддержки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актуальных задач.

И нужно надеяться, что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ым усилиям Корея придет к объединению.

В РК развивают программу языковых переводов

Во всём мире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технолог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а этом фоне в РК прош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языковому переводу между людьми и компьютер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состоялось 21 феврал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Сэчжон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письменных и устных переводов и Института кибертехнологий Сэчжон.

После раздачи заданий на их выполнение переводчикам дали 50 минут. Компьютер выполнял перевод в синхронном режиме. В итоге четыре переводчика получили 82 балла, а три компьютера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33. Уверенную победу одержали люди.

Между тем, эксперты отметили удивительный прогресс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сфере переводов по качеству и скорости работы. Компьютер может самообучаться, обрабатывая огромные объёмы данных.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о достижения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качества переводов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принимавшему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надобится около трех лет.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легации из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обобщили сахалинский опыт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качественной рыбой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На площад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ся «круглый стол», посвященный вопросам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Доступная рыба». В его рабо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рманской, Магаданской, Амурск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а такж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Запустив проект «Доступная рыба» в мае 2015 год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тем самым вошёл в режим эксперимента, где апробировался и внедрялся новый подход в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тавок и продажи рыбы.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за более чем полтора года проект доказал свою с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был пилотной проект, главной целью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ачественной рыбой 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ей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Его основой является выстроенная система прям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предприятиям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м звеном 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а Инна Павленко,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ный козырь – сохранение качества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я и доступная цена. Они формируются за счёт оптимальной логистики и заключения прямых договоров. Особенностью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на ценниках указывается отпускная и розничная цена. Это позволяет обеспечить прозрачность механизма цено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В проект мы включились с июля 2015 года. За полтора года с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отгружена тысяча тонн мороженой рыбы. ООО «Промхолод» заключено около 300 договоров как с торгов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ахалина, так и рыбодобыва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Ежедневно принимаем заявки и сами осуществляем доставку продукции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и по югу острова, - сообщил Игорь Глек,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ООО «Промышленный холод».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проект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67 рыбодоб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дин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центр и 304 объекта торговли по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лтора года ими реализовано около 2,4 тыс. тонн рыбы 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в том числе около 20 тонн - уловы шестимильной зоны. Реализованные объёмы выросли почти в полтора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5 годом.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ам проекта, основной объект продажи - свежемороженая неразделанная рыба. И это неслучайно, так как она является базовым продуктом питания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и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качестве сырья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кулинарных блюд, включая посол, копчение и другое, исходя из предпочтений потребителей.

Хочу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уже сказанному. Когда проект только запускался, то объём выкладк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витринах наших магазинов был незначительны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егодняшним днём выбор отличался в 2-2,5 раза. Сейчас наши покупатели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самый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выпускаемой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м комплекс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меет важное соци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 поделилась мнением Елена Каунова, директор сети супермаркетов.

В 2016 году с цель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лучшего опыта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и проведён конкурс «Лучший участник проекта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Доступная рыба». В номинации сред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обедителем был признан Неве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айона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уют 18 хозяйствующих субъектов и 19 торговых объектов, что составляет 33 %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торг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За врем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родано 109 тонн рыбы. По оценке людей - это востребованный проект, - озвучила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Татьяна Сидорук, вице-мэр МО «Неве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За счёт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а посредн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и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зрачности хозяйственных операций, удалось снизить цену на рыбную продукцию. За полтора года, с мая 2015 по февраль 2017 года, например, навага подешевела с 115 до 66 рублей, камбала - с 150 до 85 рублей, терпуг - с 230 до 116 рублей, треска с 280 до 125 рублей, минтай с 135 до 87 рублей. В лососёвую путину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редняя цена горбуши варьировалась в пределах 80-104 рублей.

В результат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ожились самые низкие цены на рыбу мороженую неразделанную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субъектами ДФО. В декабрьском рейтинг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ним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дешевизне данного продукта – 87,1 рубля за килограмм. Это почти в 1,9 раза дешевл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субъекта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оект «Доступная рыба» -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понятных проектов, с реальными резуль-

татами и перспективами его развития. Проект состоит из несколь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В ритейле мы добились существенного снижения цены на свежемороженую рыбу. Сейчас работаем с расширением ассортимента. Появились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и от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й проекта. Развитие фирменной торговой сети предприятий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зволило не только вывести на областную рынок продукцию по цене производителя, без торговых и транспортных накруток. Присутствие рыбаков в торговых рядах сделало доступным для населения свежее и охлажденное рыбу и морепродукты (ранее это исключением лосося на рынках области остальное было большой редкостью). На рынке появился новый сегмент. Крабов, устриц, голотурий, гребешков и т.д.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живом виде в любое время года. Места для торговли рыбой и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определены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ах области. Для жителей небольших поселений рыботорговля доставляется автолавками.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у населения имеют ярмарки (где всегд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рыбные ряды, в том числе и для продажи своих уловов рыбаками), которые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с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Быстров, -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кепсиса было много и пришлось начинать с жесткого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я. Однако удержать этот проект, сделать его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рыбаков, торговли и населения удалось только, создав правовую, логистическую и торгов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озволяющие решать социальные задачи рыночными методами.

По окончани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его участники посетили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центр, торг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 рыбную ярмарк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мнению гостей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опыт и наработ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фере развития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заслуживают внимания и поддержки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переселения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ого фонда

Такую оценку работ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дал прибывш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нстантин Цицин,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Ход переселения жильцов из домов, признанных ветхими и аварийными до 2012 года, обсуждался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с участием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и Константина Цицина. До 1 сентября 2017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расселить 274,1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На этой площади проживало 15100 человек. По данным на начало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новое жильё переехали уже 1270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ежде они проживали на площади в 222,2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ыполнение программ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ставляет 81 процент. Это на 10 процентов вы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итог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рейтинге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нимает 20-е место среди 85 субъектов, в которых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В 2017 году предстоит расселить 2400 человек, проживающих в аварийных зданиях. Для них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56,8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ового жилья.

У нас есть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все установленные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казател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 оценил Константин Цицин.

Конечно, ес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облемы,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 Мы разбираемся с некоторыми возведенными ранее жилыми комплексами. Например,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в селе Дальнем, входящем в соста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и не отвечают существующим требованиям. Отсыревшие стены, вода в подвалах, нет вентиляции, отсутствует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 социальная и транспортная. Сейчас мы такое жильё не строим. Согласовываем проекты с будущими жильцами, подбирает наиболее долговечные стро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Одновременно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готовятся начать решать проблему людей, которые живут в зданиях, признанных аварийными после 2012 года. К этой категории сегодня отнесено жильё площадью около 132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о эти данные не окончательны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ксперты продолжают обследование домов.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над расселением ветхих и аварийных зданий, строить жильё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найма, возводить арендные дома, делать ипотеку ещё более доступной для населения област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итоги совещания.

В этот же день губернатор и глава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посвященной присвоению звания «Дом образцового содержания»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у зданию № 331-а по улице

Лен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этой пятиэтажке проживают 126 человек. Благодаря тес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авления товарищества и жителей обслуживание дома ведется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Как отметил Константин Цицин, до этого дня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всего 59 зданий, получивших звание «Дома образцового содержания». Пятиэтажка по улице Ленина стала 60-й.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напомнил, чт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есть ещё один дом образцового содержания. Он находится по адресу: переулок Мичурина, 5.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был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фасад и крыша.

Жильцы дома по улице Ленина вместе с сотрудниками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сделали мног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 здании стало уютно и комфортно,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подъезды, установили приборы учета, в местах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появились датчики движения, позволяющие добиваться зна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домом в переулке Мичурина, мы окажем помощь здешним жильцам в решении имеющихся проблем.

Победителе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17» стал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иктор Христофоров

Несмотря на метель, в устье реки Найбы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собрались сотни людей. Они прибыли сюда,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ткрытых област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подледному лову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17», или всласть поболеть за друзей.

Организаторы честно признаются: сначала они ожидали, что ежег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 шестое по счету - соберёт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Когда же в ночь накануне состязаний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разыгралась сильная метель с обильным снегопадом, они были уверены – никто не приедет. Между тем,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доказали: рыбалку они любят настолько сильно, что даже непогода не способна стать помехой. 24 февраля на лед реки Найбы, традиционно богатой навагой, вышли 157 команд. В каждой – по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Состав участников оказался очень разнообразным. Уже во второй раз в состязаниях приняли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сего 21 команда. Впервые включились в состязания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прочем, в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давно уже перестал быть сугубо региона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чтобы испытать рыбацкую удачу, гости из все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Москвы и Подмоскovie,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злетевшая в небо ракета дала старт состязаниям. Правила простые. Для командного этапа отведен всего один час. Та команда, чей улов окажется наиболее весомым, окажется в победителях. Естественно, установлены и ограничения. В зачет не принимается навага длиной менее 19 сантиметров. Молодь нужно отпускать. Брошенная на льду некондиционная рыба может стать поводом для дисквалификации.

Не пропустил народную рыбалку и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Он вошел в состав команды № 222.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нашей команде впервы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стязаниях, - рассказал Борис Неганов из поселка Виахту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 Мы не вошли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но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Поэтому буде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нем в дальнейшем, и, надеюсь, добьемся успеха.

Как всегда, самым драматичным этапом состязаний оказался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К нему по правилам допускаются участники 30 команд с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ми уловами. Первенство личное, поэтому каждый за себя. Для состязаний отвели протяженный участок ледового поля. Он разделен на четыре части. По сигналу участники состязаний должны выбежать на первый участок поля и пробурить лунки. Право перейти в следующий сектор получает только тот, кто поймает рыбу заданного размера. И так – до самого финиша. Для победы одной рыбацкой удачи было мало. Участник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едстояло не тольк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бегом по полю почти по колено в снегу, но и бурить лунки в очень толстом льду.

Рыба в Найбе в день соревнований оказалась активной. А оттого на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потребовались считанные минуты. Вскоре после старта с четырьмя «хвостами» в руках финишную черту пересек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иктор Христофоров. Он и получил от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главный приз – Кубок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лодку с мотором. Вторым стал еще один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Яков Франк. Ему достался лодочный мотор.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 участник команды № 207 Ясикава Ен Бу. Его приз - лодка.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оказались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рыбвода». Их команда № 123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ацаны» смогла добыть самую крупную навагу – длиной в 40 сантиметров. Второе место - у № 23. Третье – у команды № 69. Об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반도통일 불가피성

한반도 통일과 고려인의 역할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세계 2차대전에서 일본패망이 가져다준 한민족해방이 민족국가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국토가 분단된데 이어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 분단이 고착되었다.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력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자원의 분할사용 등 여러 측면의 피해를 낳고 이로 인해 한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한 이질화, 경제적 차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국제사회는 탈냉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추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남북한이 민족간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불신 속에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혀 다른 정체성을 지닌 두 체제가 상호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남북간의 만남과 대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그동안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한 간 대화를 재개해 핵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 간의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공동체건설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상호존중에 기초한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군사도발 관행이 계속되어서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없다.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섬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온전한 가교국가로, 전쟁의 진원지에서 스위스와 같은 평화의 발원지로,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에서 고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돌고래로,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 사지가 찢어지는 거열상태를 벗어나 사두마차에 올라타는 새로운 국가탄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을 토대로 새로운 나라, 통일된 코리아를 건설해야 한다. 통일이야말로 코리아의 본래적 정체성, 대륙

적이며 해양적인 반도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동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의미가 있다.

원코리아의 통일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과 더불어 재외국민이 나서야 한다. 재외동포도 분단과 무관할 수 없으며 그동안 분단과 분열로 인해 상처를 받아왔다. 남북한을 동시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야말로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또다른 주역이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동포의 규모는 720만명에 달한다. 이중 러시아와 CIS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65만명에 이른다.

고려인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말하며 러시아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반도는 조선 말기, 러시아는 제정러시아 말기인 1863년 함경북도 경원 출신 두 사람이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 마을에 정착함으로써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가 시작되었다. 하와이 농업이민보다 39년이나 앞서 최초의 한국인 집단해외이주가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정식으로 한인이주를 승인한 해가 186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인 이주는 조선 관리의 탐욕과 학대를 피해서 또는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고자 농사지을 땅을 찾아 나선 고려인들의 러시아 이주의 슬픈 역사는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스탈린이 한인들을 일본의 첩자로 몰아 1937년 한인 18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시킴으로써 더욱 가혹해졌다. 이주과정에서 많은 한인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던 비극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필자가 주 러시아 대사로 재직하였던 2004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정부의 승인을 받아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행사를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고려인 이민사를 새로 쓰고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기념행사를 통하여 고려인 이민사가 발간되었고, 문화사절단이 파견되어, 한국 전통문화가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학술행사가 열려 고려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다. 러시아정부도 보상차원에서 모스크바 근교에 비즈니스센터와 고려인 공동묘지 부지를 제공하고 우스리스크 지역의 폐교를 고려인 연합회에 기증하였다. 지금은



주요경력
- 2014 ~ 현재 한국외교협회 회장
- 2004 러시아 레프 톨스토이협회 명예회원
- 2002 주 러시아 대사
- 2001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 1998 주 이태리 대사
- 1993 주 이집트 대사

모스크바에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고 우스리스크 고려인 기념관이 건립되어 고려인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심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2014년에는 고려인 스스로가 150주년 기념행사를 주도하여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로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를 횡단하였다. 한반도 통일대장정을 역사상 처음으로 고려인들에 의해 펼쳐진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스스로 주관한 것은 고려인 사회의 놀라운 발전을 시현한 사례다. 대한민국 국회도 결의안을 통과하여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을 다각도로 지원하였다. 남한국민이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고려인이 뚫어낸 것이다. 애국적인 고려인이 자동차 랠리로 한반도를 관통한 것은 작지만 뜻깊은 소통의 구멍을 뚫은 쾌거였다. 우리나라에는 3만명에 달하는 러시아와 CIS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는 고려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고려인들을 돕는 것은 유효한 통일사업이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행사 계기로 고려인센터가 국고지원과 민간의 기부로 세워졌다. 러시아와 한국에 소재하는 고려인센터는 고려인들이 한반도 통일의 역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도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금년은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 되는 해이다.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 고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려인 특별법 제정을 입안 중이라고 한다.

고려인뿐만 아니라 여타 해외동포, 그리고 탈북자들을 포함한 모든 한민족 구성원들이 모두 통일일꾼이 될 때 북한사회의 변화가 보다 가속될 수 있다.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스스로 변화주체가 되어야 한다. 해외에 있는 모든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북한주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직각하여야 한다.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8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야

(전호의 계속)

(3) -(으)리라 "бояться, что...", "волноваться, что..."

Выражает беспокойство или пережива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возможного факта. Используется при обращениях в фамильярной форме.

Примеры:

조심해라. 다칠라. → Осторожно! Поранишься!

빨리 가 봐. 벌써 팔렸을라. → Иди быстрее! Наверное уже продали!

이러다가 감기라도 걸릴라. → Так и простудиться можно.

(4) -(으)르 래도/-(으)르 래야 -(으)르 수가 없다

"сколько ни..., все равно...", "собираешься ..., но"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вопреки проявленным усилиям, достижение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невыполнимо.

Примеры:

아무리 설득할래도 그는 워낙 고집이 세서 설득을 할 수 없다.

→ Сколько его не убеждай, все равно не слушает.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다.

→ Старался прочитать содержание, но оно такое сложное, что я не могу его прочест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모시세요. 돌아가시면 효도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 Берегите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пока они живы. Когда они покинут вас, этого уже не сделаешь.

쓰기연습

보기와 같이 '-(으)르 턱이 없이'를 사용하여 말을 친 부분을 바꾸십시오.

보기 관심이 없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 쓰다.

→ 관심이 없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 쓸 턱이 없지요.

(1) 누구도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으니 친구가 알다.

→

(2) 누구도 그런 말을 들으면 참다.

→

(3) 어려울 때 절대 친구를 버리고 혼자 떠나다.

→

(4) 것처럼 성실한 학생이 실수하다.

→

(5) 나하고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그가 혼자 영화관에 가다.

→

2. 보기와 같이 '-(으)르 지언장'을 사용해서 두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오늘 본 연극은 재미가 없다 / 나쁜 작품은 아니다.

→ 오늘 본 연극은 재미가 없을 지언정 나쁜 작품은 아닙니다.

(1) 늦다 / 과속하면 안 된다.

→

(2) 차라리 좋은 점수를 포기하다 / 커닝은 안 한다.

→

(3)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 / 그 일은 하지 않겠다.

→

(4) 놀 때 놀다 / 오늘날만큼 공부 열심히 하거라.

→

(5) 죽을 때 죽다 / 그 수술은 꼭 받아야 한다.

→

3. 보기와 같이 '-(으)르 라'를 사용하여 () 안의 단어를 바꿔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파도타기 하려다 물 (먹다)

→ 파도타기 하려다 물 먹을라.

(1) 어서 가세요. 막차도 (놓치다)

→

(2) 빨리 서둘러라. 이렇게 느장을 부리다가 학교에 (지각하다)

→

(3) 천천히 먹으렴. 급하게 먹다가 (제하다)

→

(4) 옷을 단단히 챙겨 입어라. (감기 걸리다)

→

(5) 엄마 손 꼭 잡고 다니거라. 혼자 다니다 길 (잃어 버리다)

→

4. 보기와 같이 '-(으)르 래도 / -(으)르 래야 -(으)르 수가 없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다.

→ 나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다.

(1) 낚지 볶음은 너무 매워서 먹을 수 없다.

→

(2) 그 회사는 아무리 광고를 해도 인기가 높아질 수가 없다.

→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고르니 위스두호>스키장, 교사들에게 스키와 스노우보드 강습 받기를 제안

<고르니 위스두호>종합스포츠관광센터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학교 체육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특별활동을 준비한다고 홍보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교사들은 무료로 알핀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배울 수 있게 된다. 지원자들에게는 무료로 케이블카 탑승, 장비 제공, 그리고 스키 강사들과 함께하는 강습도 조성된다.

신청서 제출은 전화: 8-914-758-18-27 (28-18-27)로. 참가를 원하는 교사들은 여권과 체육교사 또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확인할 만한 제직증명서(또는 경력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교육은 주말과 명절 외에 매일 참가자들의 근무 시간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알피카>컴파니와 공동으로 개최된다고 <고르니 위스두호>스키장 홍보실이 전했다.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едлагает учителям научиться кататься на лыжах или сноуборд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объявляет об акции для учителей физкультуры и учителей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1 по 31 марта он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научиться кататься на горных лыжах и сноуборд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бесплатные подъемы на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выдача снаряжения, организуются занятия с инструкторами.

Заявки можно подать по телефону: 8-914-758-18-27 (28-18-27). Участникам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при себе паспорт и справку с места работы (либо выписку из трудовой книжки), подтверждающую статус учителя физкультуры или педагога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Акция проводится совместно с компанией "Альпика".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ежедневно в рабочее время кроме выходных и праздник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여름에 복사할린에서 관광지도자학교 열려

8월 1일부터 16일까지 복사할린에서 <사할린 2017> 관광지도자학교가 열린다.

이 기획은 <사할린 에너지>컴파니 소속 <에네

르기야>소셜이니셔티브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로스토크>자원봉사활동 행사의 하나로써 진행되며 <로드나야 체믈라(고향땅) 사할린지역사회단체가 주최한다.

진행되는 기획은 <로스토크>관광지역봉사활동에 있어 관광을 적극적으로 하는 노글리키, 티몹스코예,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스미르너호, 오히 구역들의 청년, 교육자들을 연합하려는 데 있다.

<로드나야 체믈라>는 2월에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참가자 명단은 4월 초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летом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школа инструкторов туризма

С 1 по 16 августа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пройдет школа инструкторов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2017".

Школ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мероприятий волонтерск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ток".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 СРОО "Родная земля"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фонда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Энергия"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на объединение активных туристов из числа молодежи, педагогов Ноглик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в волонтерское туристско-краевед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Росток".

В феврале "Родная земля" начала прием заявок. Список участников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сообщает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허 세르게이의 <변덕스러운 마음의 전조>공연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

3월 10일 18시 30분에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허 세르게이의 <변덕스러운 마음의 전조>공연이 개최된다. 사랑과 봄을 주제로 한 푸쉬킨, 폴론스키, 예세닌, 자볼로츠키, 베른스 등 고전적 시인들의 시들을 낭송할 예정이다.

입장은 자유이고 문의전화는 72-36-43, 72-37-38라고 주문화문서보관부 사이트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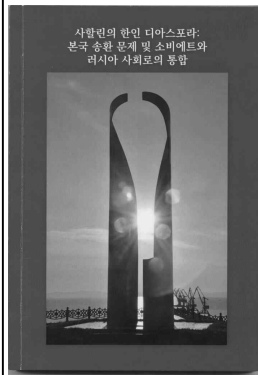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концерт Сергея Хе "Души изменчивой приметы"

10 марта в 18:3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концерт Сергея Хе "Души изменчивой приметы". Прозвучат песни о любви и весне на стихи Пушкина, Полонского, Есенина, Заболоцкого, Бернса и других поэтов - классиков.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72-36-43, 72-37-38,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Монографи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вышл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благодаря кому это издание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 переводчику профессору Ким Джон Хону, Обществу старейши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его председателю Ким Хон Ди, Фонду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бывшему директору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Джан Вон Чану.

Благодаря этим людям и организациям книга теперь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и корейским читателям.

Дин Юлия, к.и.н.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저의 저서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송환 문제 및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이 한국어로 출간되었습니다. 출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 즉 번역을 맡아 주신 김종현 교수님, 사할린 노인회와 본 회 김홍지 회장님,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전 사할린한국교육원 장원창 원장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의 여러분들과 여러 조직들 덕분에 한국인 독자들도 저의 저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 울리아, 역사학 박사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